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한림책방					
일시/장소	일시	2026/04/13, 15			장소	한림극회 동아리방, CLC 1층 글로벌 라운지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식품영양학과	학번	2024****	이름	서*경
	학과	사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인
	참석인원(명)	4/4명		참가자 대표	장*희 (서명)	
도서	도서명	벚꽃 동산			저자	안톤 체호프
	출판사	열린책들	출판연도	2009년 11월 10일	번역자	오종우
오늘의 북클럽 주제	계절과 사회현상의 상관관계 [봄] <벚꽃 동산> 비평					
활동 내용 & 방법						
<p>벚꽃동산을 읽고 총 평점 및 질문에 대한 토의 진행, 간단한 낭독 진행</p> <p>[봄] 벚꽃 동산 평점/느낀점</p> <p>정*인 평점 1.5/5.0</p> <p>러시아형의 이름이 입력이 안된다. 그거를 떠나서 이미 가독성 자체가 독자에게 매우 불친절하다고 느꼈다. 그로 인해 1-2막까지는 내용 이해가 전혀 안됐다, 3-4막까지 다 읽어도 이해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고 오히려 오리무중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p> <p>최*서 평점 1.5/5.0</p> <p>앞서 말한 것처럼 인물 이름들이 너무 헛갈린다. 가독성 역시 떨어진다고 느꼈다. 개인적으로 캐릭터들의 성격이 너무 짜증났다. 회피형인 모습이나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 답답하고 읽는 내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총체적으로 계급 사회에 대한 풍자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상인 ->귀족 전복) 이것이 시대적 배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더욱 평점이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하였다.</p> <p>서*경 평점 2.0/5.0</p> <p>이름이 누구야? 싶을 정도로 읽히지도 않았다. 가독성이 떨어지고 전개까지도 방해되는 느낌을 읽는 내내 지울 수 없었다. 다만 작품의 선악 구분이 불분명한 점을 조금 높게 사고 싶다.</p> <p>장*희 평점 1.5/5.0</p> <p>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가독성이 떨어진다. 극이라는 특성상 자세한 설명보다는 대사와 행동지문들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불친절하지 않았나 싶다.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내용의 이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잘 알겠지만 이 극 내용 자체를 이해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느꼈다.</p>						

Q1. 신청서에서 '가장 화사한 봄에 심리적 부조화가 극대화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극 중 배경인 벚꽃이 만개한 '봄'은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상징하지만, 주인공 라네프스카야 가족에게는 가산 탕진과 몰락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비극적인 상황이 대비될 때 독자가 느끼는 감정적 '균열'은 무엇일까요?**

정*인

현실에서도 심리적 현상은 흔히 나타난다. 봄이 주는 이미지라는 것이 새로운 출발 등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아드릴 수는 없는 것. 그 때문에 감정적 균열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독자에게 극단의 대비로써 다가오는 감정적 균열이 당연하게 받아드려질 수 밖에 없다.

최*서

봄에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상징성, 프레임이 존재한다. 설레임이 존재하지만 그와 반대 되게 낯설음,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도 생각한다. 따라서 새롭기 때문에 생기는 미지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그로 인해 독자는 감정적 균열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서*경

사계절 중에 봄이 새로운 출발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은 1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사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봄이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좌절감도 생길 것이 분명하다. 특히나 정신병 걸리는 주변인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오는 괴리감을 표현하고 그것을 감정적 균열의 일종으로 표현하려고 한게 아닐까 싶다.

장*희

아름다운 광경과 비극적인 상황의 대비는 부쩍 많이 이용되는 대비적 효과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독자에게 '비극'에 대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독자들은 들의 묘한 대비에 위화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독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다.

Q2. 작품 속 '벚꽃 동산'은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로파힌에게는 수익을 내야 할 '개발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벚꽃 동산'처럼 사라져가는 과거의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변화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인

경제적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더라도 이것만 따지면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추억과 기억이 있는 장소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다면 그 기억을 살리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한다. 벚꽃 동산처럼 공원이 있다면 넓은 부지를 활용해 복합적 공간을 만든다면, 영상이나 사진물을 통한 회상도 가능할 것이다.

최*서

과거의 가치가 더 중요함 / 우리의 모든 경험과 기억들은 미화된 채로 기억되기가 부지기수,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소한 경험과 기억으로 살아가게 된다. 사소한 기억들이 모여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가치를 잃었다하더라도 그 공간 자체를 없애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과거가 있기에 미래가 있다고 하듯이 그 공간의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들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또 다른 가치의 붕괴일지도 모른다.

서*경

과거의 가치가 더 중요함 / 현재가 어느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과거의 기억과 추억 자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재 뿐만 아니라 추억과 공간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퇴화되지 않도록 보존할 필요가 있다.

장*희

경제적 효율성 /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과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치우치면 안된다. 쓸모를 다 해버린 장소에는 과감하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한 경제적 이윤을 얻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것이 생김으로써 '벚꽃 동산'처럼 누군가에게 새로운 추억의 장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3. 계절을 단순한 시간 흐름이 아닌 '인간 내면을 비추는 거대한 은유'로 보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자연은 순환하지만, 주인공들은 다가올 몰락을 알고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관성적인 태도가 현대 사회의 어떤 사회현상(예: 환경 위기나 경제적 불황에 대한 무감각 등)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인

안전 불감증 /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화재대피 종이 올려도 대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재로는 세월호 (선장의 미흡한 태도, 적재 무게 초과, 안전 이슈),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가 대표적인 예로 존재할 것이다. 이처럼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들 부실공사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왜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왜 나아지지 않고 주먹구구식 운영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이미 피로 써진 일들이 이미 있는데도 발의하는 법 자체가 탁상공론인 이유가 벚꽃 동산의 인물이 본인들의 일마저 관성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매우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최*서

성 자율성 (성적 지향성) / 대한민국의 경우 종교의 영향이 크다. 특히 기독교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필리핀에서 중고등학교를 살아온 경험으로써 필리핀은 가톨릭이 다수. 하지만 필리핀은 굉장히 젠더프리하다. 트랜스젠더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많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시선이 정말 안 좋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세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 에 비해서는 인식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면해서는 안되고 과도기인 시절을 지나 인식이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대의 인식 교체가 있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있어야 하는데 세대 교체가 더더지는 것도 성 자율성에 인식에 대한 방해요소라고 생각한다.

서*경

환경 위기 / 뉴스만 봐도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방영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당장 학교 시설들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쓰레기통 주변이 매우 더러울 때가 많다. 동물들의 터전은 사라져가지만 각국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빠하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자체도 하지 않는 곳들도 많다. 그나마 소수의 개인만이 환경 문제를 신경 쓰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뒷수습임.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환경 위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먼저 나서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점이 관성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장*희

ai의 발전속도와 윤리 (윤리적 공백) / 현재 우리사회의ai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일상생활의 각 부분에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이나 규율이 비교적 미흡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그림, 성우 부분(지브리 풍 그림, 무단 학습 그림 등) 가리지 않고 많은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실태라고 생각한다. 이를 근절하자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겐 아직 ai창작물 뒤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에도 전혀 규율을 지키지 않아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Q4. 이번 북클럽은 계절을 감각적으로 포착한 텍스트를 탐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가가 여름이나 겨울

울이 아닌 '봄'의 '벚꽃'을 몰락의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인

가을 탄다는 말이 있듯이 가을이나 겨울은 명확하게 봄/여름에 비해서는 우울한 기분이 감돈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여름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봄보다 여름이 좀 더 생기있고 밝은 느낌, 완전한 푸르름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봄이 가장 대표적으로 꽃이 개화하는 계절이라고 하지만 꽃은 모든 계절에 피듯이, 그 시작은 봄이지만 여름이 가장 계절이 안정된 느낌이라고 생각해 여름을 배경으로 선택했다면 계절과 내용의 간극이 너무 커서 내용의 이해가 더욱 어려웠을 것 같다.

최*서

귀족 가문의 몰락을 봄이라는 벚꽃에 비유해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도끼질 하면서 끝나는 것으로 가문의 완전한 몰락과 봄의 저물음을 표현. 봄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 간다고 느꼈다.

서*경

벚꽃이 진다는 말 자체가 화사하고 만개한 것이 스러져가는, 한순간이라는 봄의 계절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라고 생각했다. 찰나가 아름다운 벚꽃처럼 인생도 찰나가 아름다운 것.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귀족 계층이라는 화려한 삶이 찰나라는 것이다. 성행하던 귀족 가문의 모습을 벚꽃의 일대기와 비교해 가문의 화려함, 몰락, 마지막으로 멸문하는 것까지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장*희

'벚꽃'을 흔히 몰락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니 가장 뚜렷한 반전의 요소로 넣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앞서 말했듯이 아름다운 풍경과 비극적인 상황의 대비에서 가장 극적으로 둘의 대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나 싶다. 가문의 일대기를 계절의 지남이라 생각하고 봄이 저물어감 자체를 보여주고자 한 거 같다.

활동 결과

이번 모임에서 부원들은 처음엔 헛갈리는 이름과 불친절한 대사 때문에 책을 읽기 까다로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토의를 시작하자마자 기대 이상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됐다. 우선 '봄'이 무조건 설레고 기쁜 계절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주는 '역설적인 계절'. 벚꽃 동산을 팔아야 하느냐를 두고는 추억이 깃든 과거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과감하게 개발해 새로운 추억의 공간을 만들자는 효율성 측면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가장 흥미로웠던 순간은 다 가을 위기를 외면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포착했을 때였다>. 부원들은 이를 안 전불감증, 성 자율성에 대한 기성세대의 시선, 환경 위기 무감각, 그리고 최근 화두인 AI 윤리 공백 문제까지 연결하며 열띤 대화를 이어갔다. 화사하지만 금방 저버리는 '벚꽃'을 통해 인생의 찰나와 몰락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 이번 모임은 봄이 가진 뻘한 이미지를 깨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사회적 징후들을 함께 고민해 본 뜻깊은 첫걸음이었다.

활동 자료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한림책방					
일시/장소	일시	2026/04/22			장소	한림극회 동아리방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식품영양학과	학번	2024****	이름	서*경
	학과	사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인
	참석인원(명)	4/4명		참가자 대표	장*희 (서명)	
도서	도서명	이방인			저자	알베르 카뮈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2011년 03월 25일	번역자	김화영
오늘의 북클럽 주제	계절과 사회현상의 상관관계 [여름] <이방인> 비평					
활동 내용 & 방법						
<p>이방인을 읽고 총 평점 및 질문에 대한 토의 진행</p> <p>[여름] 이방인 평점/느낀점</p> <p>정*인 평점 3.5/5.0</p> <p>저번의 책과 비교했을 때 술술 읽혔다. 다만 내용은 술술 읽히는 것과 반대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공감은 힘든 책이라고 생각했다.</p> <p>최*서 평점 3.0/5.0</p> <p>문체 자체는 읽기 어렵지 않으나 책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철학적이다 보니 한 번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p> <p>서*경 평점 3.0-3.5/5.0</p> <p>저번의 책에 비해 읽기는 쉬웠다. 하지만 내용은 꿈같이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이해도와 별개로 책 내용은 흥미로웠다는 점을 높게 샀다.</p> <p>장*희 평점 3.5/5.0</p> <p>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게 느껴졌다. 느껴지는 바는 있는데 마치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입 밖으로는 표현이 잘 안되는 느낌이었다. 그와 별개로 책 자체는 흥미롭게 읽었다.</p> <p>Q1. 신청서에서 '뜨거운 여름의 태양 아래서 서늘한 고독을 마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인공 뫼르소가 살인을 저지른 결정적 이유로 '태양'을 꼽았는데, 생명의 근원인 태양이 어떻게 뫼르소에게는 파괴적인 '부조리'로 작용했을까요?</p> <p>정*인</p> <p>태양이 상징하는것이 뜨겁고, 덥고, 빛나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의 이성을 흐리게 만든다. 뫼르소가 순간</p>						

적인 이성의 흐트림을 태양 때문이라고 변명한 것 아닐지 생각해봤다. 태양은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변명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최*서

뫼르소 본인이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문득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이성적이지 않았고 굉장히 충동적이었다. 각자가 의미 있는 삶을 노력하고 개인만의 정의와 법칙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충격을 통하여 뫼르소 본질을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

서*경

이유나, 남들의 시선 같은 정상적인 행동 범위보다는 스스로의 입장이 중요한 뫼르소이기 때문에 잠깐의 태양빛이 뫼르소가 방아쇠를 당긴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당장의 충동을 태양에 빚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발적인 살인을 빚대어 말한 것 아닌가 싶다.

장*희

생명의 근원이라 불리우는 태양은 어찌보면 뫼르소와 가장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면서도 강렬하게 타오른다는 이미지가 뫼르소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비이상적인 존재. 그 아이러니함을 '태양'이라는 것에 담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강렬하게 타오르는 태양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인 살인을 하고 그저 태양 때문이었다고 거대한 자연의 이치에 비겁하게 숨는다고 느껴짐.

Q2. 사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이유로 뫼르소를 도덕적으로 단죄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계절에 맞는 감정(예: 여름은 활기차야 한다)'이나 '상황에 맞는 예법'이 개인의 진실성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토의해보고 싶습니다.

정*인

억압은 당연히 존재한다. 감정적 부분에서 대해 남들과 똑같이 느끼지 않으면 단적으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그들을 빚대어 부르는 말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이고 억압일 수 있다. 그리고 슬픔이 오는 기간은 개별마다 다를 수 있음에도 사회에서는 슬픔의 기간을 정해놓고 느끼게 한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이 오는 시간대는 다를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서

예를 들어 3명의 사람이 있을 때 1명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나머지 2명이 그 1명에게 프레임을 씌우며 그 사람을 정의하고 단죄해버린다. 특히나 한국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에서도 재판할 때 뫼르소가 재판을 받는 이유가 '살인'인 것인데 살인에 집중하지 않고 '부모님의 사망 소식에 슬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뫼르소에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를 판단했다. 그의 개인적인 감정은 몰살하고 그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단 사항에 따라 그저 그를 심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것은 개인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

서*경

더불어 가는 사회임에도, 대체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에 공감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어머니가 죽으면 슬프고, 여름이니까 덥다는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는, 튀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진실성이 억압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에 융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많이 죽인 채 결과적으로 그 사회에 동화된다고 느낀다.

장*희

이 부분들은 특히나 한국 사회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흔히 '유행'이라는 것에 목 매어 그것을 따라가지 않거나 불호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각박하게 반응한다. 그저 개인의 기호가 있는 것뿐인데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조는 점점 개인의 진실성을 억압하고 획일화된 사회를 만들어 갈 뿐이다. 뫼르소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단죄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일차원적인 사고이며, 그의 죄보다 감정에 더 치우친 우스운 결정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잘못은 그

의 잘못된 일 뿐 그에 대한 표현 방식으로 그를 판단할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Q3. 뒤르케임은 세상의 가치관에 섞이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타인 혹은 사회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이며, 그 고독은 여름의 열기처럼 뜨거울까요, 아니면 신청서의 표현처럼 서늘할까요?

정*인

서늘함 / 사소한 거부부터는 친구랑 가치관이 정말 안 맞는데, 크게는 한국 가치관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교육 체제에서 그 부분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본인 스스로와 너무 맞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방향성에서 많이 고민했었다. 스스로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고민과 차가운 현실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는 건가 의문이 내가 동떨어진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 다소 소외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래서 서늘함이라는 느낌이 더 가까운 거 같다.

최*서

서늘함 / 해외 갔을 때 특히나 두드러지게 느낌이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권 자체가 다르다보니 괴리감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일상적인 부분 하나하나에서도 특이점이 느껴지고, 그들의 일상에 내가 편입되지 못한다는 감정. 이것은 해외살이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일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완전히 분절되어 이 벽을 넘어야 할 때 그것이야말로 '이방인' 그 자체라고 느껴졌다.

서*경

뜨거움 /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열받아서이다. 본인의 예시를 들자면 친구와 본인의 가치관이 서로 많이 다르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가정 환경 등 친구는 친할수록 막대하는 타입, 본인은 소중하게 다루고 싶은 타입이다. 하지만 친구와 나는 정말 많이 닮아있어서 '너는 나와 닮게 될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주변에서 마저도 너는 친구와 너무 많이 닮아서 그럴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친구가 없을 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했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가치관이 맞지 않을 때 마음 속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 사람과 다르다고 느낄 때마다 느껴지는 분노 및 서늘함이 반복되는 거 같다.

장*희

서늘함 / 우리가 타인 혹은 사회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느껴질 때는 몹시 서늘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피가 차게 식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사회에서 '이방인'이라고 느껴진다면 난 몹시 당황스럽고 겁을 먹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주로 뜨겁다기보단 차갑다고 표현되기 때문에 서늘함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Q4. 뒤르케임은 사형을 앞두고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을 받아들이며 행복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타오르고 소멸하는 여름의 절정에서 **허무를 직면함으로써 오히려 얻게 되는 삶의 해방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인

본인 스스로가 고민하던 것에 대해 공감을 해주고 받아드려주면 반가운 느낌이 드는 것처럼 후련한 기분 아닐지. 대학교에 와서 나 혼자 생각했던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마음에서 오는 해방감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최*서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므로써 스스로의 고민과의 괴리감이 사라졌을 것이다. 문제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문제에서 탈피하는, 미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경

완벽한 마무리. 뫼르소가 계속 무관심한 인물로 그려졌다. 독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삶의 절망이라고 볼 만큼 속상할 일일 것 같은데 뫼르소에게는 의미 없음조차 의미가 없다는 것. 의미 그 자체에서 해방되어 죽음으로부터 탈피했다고 생각한다.

장*희

모든 것이 허무하다, 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드리는 것은 사실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책 전반에 걸쳐 엄세적인 태도를 드러내던 뫼르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허무를 직면하므로써 오히려 뫼르소는 사형을 기꺼이 받아드리고, 모든 것의 끝, 해방이자 죽음은 사형을 마땅히 받아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끝낼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이 해방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흔히 다 부질없다고 말하고, 모든 것에 일일이 연연하지 않는 태도가 다 이것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신경 쓰던 부분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고 내 인생과 하등 관계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그 순간. 삶에는 엄청난 해방감과 후련함 동시에 괴리감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고통까지 온전히 받아드리고 난 후에는 뫼르소처럼 일명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활동 결과

이번 활동에서 부원들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읽고 주인공 뫼르소가 마주한 부조리와 사회적 심판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도서에 비해 가독성이 좋아 텍스트 자체는 수월하게 읽혔으나, 철학적인 주제 의식으로 인해 인물의 행동에 온전히 공감하기는 어려웠다는 아쉬움이 공통으로 언급되었다. 부원들은 뫼르소의 우발적인 살인 동기가 된 '태양'의 의미를 짚어보며, 강렬한 자연의 이치 뒤에 숨은 인간의 충동성과 아이러니를 분석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살인'이라는 본질보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관습적 잣대로 인물을 단죄하는 사회적 프레임에 주목하며, 개인의 진실성을 억압하는 한국 사회의 획일성과 유행에 대한 각박한 시선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아가 대학 교육 체제나 해외 생활 등 일상에서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분절되어 느꼈던 서늘하고 뜨거운 고독의 순간들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을 받아들인 뫼르소의 태도를 통해, 타인의 시선과 삶의 연연함에서 완전히 탈피했을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역설적인 해방감에 깊이 공감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활동은 문학을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탐색하고, 삶의 허무를 직면함으로써 얻는 삶의 주체성을 검토하며 작품 이해를 확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활동 자료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한림책방					
일시/장소	일시	2026/04/27			장소	한림극회 동아리방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식품영양학과	학번	2024****	이름	서*경
	학과	사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인
	참석인원(명)	4/4명		참가자 대표	장*희 (서명)	
도서	도서명	남아 있는 나날			저자	가즈오 이시구로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2021년 8월 6일	번역자	송은경
오늘의 북클럽 주제	계절과 사회현상의 상관관계 [가을] <남아 있는 나날> 비평					
활동 내용 & 방법						
<p>남아 있는 나날을 읽고 총 평점 및 질문에 대한 토의 진행</p> <p>[가을] 남아 있는 나날 평점/느낀점</p> <p>정*인 평점 1.5/5.0</p> <p>최*서 평점 1.5/5.0</p> <p>서*경 평점 2.0/5.0</p> <p>장*희 평점 2.5/5.0</p> <p>총평 : 이야기가 너무 매끄럽지 않다. 이것저것 전부 얘기하고 싶어하는데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이뤄지니 오히려 산만하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된다고 느꼈다. (4명 전원이 비슷하게 느꼈고,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여 총평으로 정리함)</p> <p>Q1.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 동시에 낙엽이 지는 상실의 계절입니다. 주인공 스티븐스는 평생 '품위'를 지키며 완벽한 집사로 살았지만, 인생의 가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놓친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가수확한 '직업적 자부심'과 그가 잃어버린 '인간적 삶' 중 무엇이 더 무게가 있을까요?</p> <p>정*인 스티븐스는 집사로서의 삶을 지키며 살았지만 결국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놓친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인간적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엔 그도 인간이기에 집사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인간적 삶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p>최*서 스티븐스는 평생을 완벽한 비서로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본인을 억압해오며 살았다. 아버지가 위독해서 죽음 앞에서도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온전히 일에 집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했</p>						

다. 직업적 자부심을 위해 그의 삶을 포기 했기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품위와 명예 때문에 잃어버린 상실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한다.

서*경

인간적인 삶이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평생 완벽한 집사로 살며 직업적 품위를 지켰지만 결국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자신이 얻은 직업적 자부심이 인간적인 삶의 대가라는 것을 알게된 장면에서 그렇게 느낌. 직업적 자부심 자체도 인간적인 삶을 중요시 하고 그 위로 쌓일 때 빛을 본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성공, 직업적 성취가 인간적 충만함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희

당연히 인간적 삶이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디 직업이 삶 그 자체보다 절대 앞이 될 수 없다. 그가 비서로써 수행하면서 당연히 많은 칭찬과 명예를 거머쥐어 왔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인격적인 삶은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너무 비서에 몰입한 나머지 여가 시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이를 비추어 봤을 때, 스티븐스의 잃어버린 인간적 삶의 무게가 월등히 높다고 생각한다.

Q2. 신청서의 목표인 '계절이 인간 내면에 만드는 균열'과 관련하여, 스티븐스가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며 지켜온 '집사로서의 가면'이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들(가을날의 여행 중 마주하는 감정들)은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 징후를 시사하나요?

정*인

집사로서의 가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면이 무너지는 즉, 벗겨지는 상황들은 흔히말해 현타가 온다라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징후라함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최*서

평생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온 스티븐스는 비서의 기본적 품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행을 하며 과거를 회상 할 때 그런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현재 사회 사회생활이나 일을 할때 프로답게 행동해야지 라는 압박속에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은 후에 더큰 공허함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소설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다.

서*경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눈치 보느라 자신의 감정을 자중하는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 이르면서 사람들이 개인의 감정보다 사회적 분위기나 위치 등 보여지는 부분들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여기는 모습을 이 책에선 집사로서의 가면이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들로 표현하며 더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장*희

흔히 말하는 워커 홀릭과 직업병에 관련한 부분들이 떠올랐다. 한 가지 업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그것 이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가는 상황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닐까 싶다. 스티븐스가 여행을 통해 말한 것과 같은 것을 알아가며 직업적으로 사회와 단절되어있던 사람이 사회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Q3. 스티븐스는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 노력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계절(과거)을 아름답게만 기억하려는 관성이현재의 진실을 대면하는 데 어떤 방해가 된다고 보시나요?

정*인

우리가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화된 기억으로 인해 현재가 힘들어 지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망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화된 기억 덕분에 현재가 힘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최*서

힘들었던, 안 좋았던 우리의 모든 기억은 미화된 채 추억으로 남게 된다. 좋은 것 만 기억하려는 인간의 관성으로 인해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 미화된 추억은 현재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지만 문제 직면을 늦추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합리화의 폐허이지 않나 싶다.

서*경

주인공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한다. 자신의 주인을 훌륭한 신사로 기억하려고 하고, 그렇기에 자신의 충성 또한 가치 있었다고 믿으려한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을수록 외면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자신의 신념은 흔들린다. 이 부분이 인간은 종종 과거를 아름답게 미화하면서 과거의 후회를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기성찰과 발전을 방해하면서, 결국 나중에 현실을 직시했을 때, 나 자신을 더더욱 공허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장*희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흔히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진실을 가리기에 과거 미화만큼 좋은 것도 없다. 과거의 기억만을 아름답게 기억한다면 현실을 더더욱 힘들게 느껴질 것이고 그만큼 문제점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성적 행동은 결국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을 늦추고 삶을 멈춰 있게 만들 것이다.

Q4. 소설의 끝에서 그는 저녁노을을 보며 다시금 '남아 있는 나날'에 대해 생각합니다. **인생의 황혼(가을 저녁)을 마주한 이에게 '희망'이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받아들여야 할 역설일까요?

정*인

희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희망이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이든 또 다른 인생의 타이밍이든 언제든지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이라고 해서 희망을 모두 버리고 살아야한다는 것은 너무 슬플 것 같다.

최*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다. '모든 것을 다 처음으로 되돌려놓겠어!' 처럼 대단한 강렬한 희망이 아니더라도 지금 일을 받아드리며 이후 더 큰 상실없이 살아가려는 것 또한 하나의 희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과 체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서*경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에 마지막에선 주인공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 사실에 절망하기 보단 남아있는 시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서 의미하는 남아 있는 나날은 늦은 깨달은 속에서도 인간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이며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후회를 깨달은 이후에도 변화할 가능성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장*희

희망이란 것에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한 떨기의 빛만 비추어도 희망이라고 하듯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였다고 하여 희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역설이라는 말도 맞다. 사람에게 시간은 불가피한 존재이며 노화는 피할 수 없이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을 따로 생각하기 보다 노화했음에도 그를 받아드리고 제목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는 나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생각 하다보면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Q5. 스티븐스는 자신의 주인이 친나치 성향이였음에도 '집사의 본분'만을 강조합니다. 이를 **현대 사회의 조직 구성원이 겪는 '개인의 도덕성 vs 직업적 소명' 사이의 균열로** 해석해본다면 어떨까요?

정*인

개인의 도덕성과 직업적 소명 사이 균형을 잡는게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동안에는 개인의 도덕성 보다도 직업적 소명에 집중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직업적 소명 보다도 개인의 도덕성을 돋보여도 된다고 생각한다.

최*서

스티븐스는 직업의 본분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개인의 도덕성보다는 직업적 소명에 더욱 충실하게 행동한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사나 조직안에서 “내 역할만 하면 된다”는 논리 속에서 일한다. 하지만 작품은 그런 태도가 때로는 개인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스티븐스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침묵과 복종 역시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는 직접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잘못된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셈이다.

서*경

품위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성찰과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주인의 정치적 판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알면서 자신의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여겼다. 그는 직업적 충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비윤리적인 선택을 침묵하는 태도로 이어졌다. 현대사회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만으로 끝이 아닌 개인은 조직 속에서도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장*희

스티븐스의 모습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단순한비겁함 이라기보다, 직업적 소명과 계급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집사로서의 완벽한 충성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여겼고, 개인의 판단보다 ‘맡은 역할’을 우선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주인의 잘못된 선택까지 묵인하게 만들며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멀어지게 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다. 회사나 조직의 목표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복종보다 윤리적 판단 능력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따라서 스티븐스의 선택은 ‘충성’ 자체보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 맹목적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활동 결과

이번 활동에서 부원들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 있는 나날』을 읽고 인생의 황혼에서 마주하는 품위의 역설과 회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서사가 산만하여 전반적인 내용 이해와 몰락해가는 감정에 몰입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이 제기되었다. 부원들은 평생 '품위'를 지키며 완벽한 집사로 살았던 스티븐스의 삶을 통해 가을의 수확과 상실을 짚어보았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할 만큼 강박적으로 직업적 소명에만 몰두하며 인격적인 삶을 버린 스티븐스의 태도를 보며, 사회적 성공이나 명예가 결코 인간적인 삶의 대가나 충만함을 대신할 수 없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특히 스티븐스의 '집사로서의 가면'이 무너지는 찰나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과도한 업무 압박과 직업병, 그리고 사회적 가면이 벗겨질 때 찾아오는 공허함과 '현타'라는 사회적 징후를 날카롭게 포착했다. 나아가 인간이 후회와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과거를 아름답게 미화하는 관성이 오히려 문제 직면과 자기성찰을 늦추어 삶을 멈추게 만든다는 역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또한 주인공이 조직의 논리에 침묵하고 복종하며 주인의 친나치 행적을 묵인한 행동을 두고, 현대 조직 구성원들이 겪는 '개인의 도덕성 vs 직업적 소명'의 균열을 다루며 단순한 복종보다 윤리적 판단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책임 의식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저녁노을 앞에서 스티븐스가 마주한 '남아 있는 나날'을 두고, 비록 늦은 깨달음과 노화라는 불가피한 역설 속에서도 남아있는 시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함께 발견하며 작품 이해를 확장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활동 자료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한림책방					
일시/장소	일시	2026/05/06			장소	한림극회 동아리방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식품영양학과	학번	2024****	이름	서*경
	학과	사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인
	참석인원(명)	4/4명		참가자 대표	장*희 (서명)	
도서	도서명	설국			저자	가와바타 야스나리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2002년 1월 31일	번역자	유숙자 (옮김)
오늘의 북클럽 주제	계절과 사회현상의 상관관계 [겨울] <설국> 비평					
활동 내용 & 방법						
<p>설국을 읽고 총 평점 및 질문에 대한 토의 진행</p> <p>[겨울] 설국 평점/느낀점</p> <p>정*인 평점 3.5/5.0</p> <p>최*서 평점 3.5/5.0</p> <p>서*경 평점 3.5/5.0</p> <p>장*희 평점 4.0/5.0</p> <p>총평 : 전반적으로 문체가 좋고 여지껏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무난한 흐름으로 흘러갔다. 책이 드러내 고자하는 내용이 확실하고, 계절적 특성이 잘 살아있어 다들 기본 이상의 점수를 주었다. (4명 전원이 비슷하게 느꼈고,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여 총평으로 정리함)</p> <p>Q1. 신청서에서 계절은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대한 은유'라고 하셨습니다. 소설의 첫 문장에 등장하는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나 마주하는 눈의 고장(설국)은 주인공 시마무라에게 어떤 내면적 변화를 일으키는 공간인가요? 이 터널이 일상과 비일상, 혹은 현실과 환상을 가르는 '심리적 장치'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토의해봅시다.</p> <p>정*인 국경의 긴 터널은 주인공에게 현실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통로이다. 시마무라는 터널을 지날 때마다 책임을 가진 도쿄의 남자에서 아름다움만을 소비하는 관찰자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탈바꿈은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공허하게 만든다.</p> <p>최*서 단순한 스토리적 배경 설명이 아닌 시마무라의 상태와 심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문구라고 생각한다. 하</p>						

나의 경계처럼 보여지며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의 공간으로 가는 통로처럼 약간 주변 신경 쓰지않고 남들 눈치보지 않고 본인만의 환상에 빠지는 느낌이라고 느꼈다. 단순 겨울 풍경이 아니라 관계와 상황에 대한 허무 쓸쓸함을 극대화 시키게하며 현실감각을 점점 잃어가는 것을 긴 터널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다.

서*경

소설에서 긴 터널은 현실에서 비현실의 공간인 설국으로 넘어가는 경계로 사용된 것 같다. 하지만 이 터널이 내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주인공은 설국이라는 비일상 속에서 현실의 책임을 잠시 잊고 아름다움을 소비한다.

장*희

터널을 넘어가는 장면은 책의 시작인 만큼 가장 직관적으로 시마무라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다.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자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대한 은유라는 것은 사실 계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빚대어 질 수 있다. 시마무라에게 있어 그것이 바로 터널이 아닐까. 이 터널을 지나면 시마무라는 현실에서의 가족과 일상, 업무를 잊고 오로지 환락의 세계에 취하게 된다.

Q2. 시마무라는 게이샤 고마코의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을 '헛수고(도노, 徒勞)'라고 치부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녀에게 끌립니다. 모든 것이 눈 아래 덮여 정지된 듯한 겨울의 풍경 속에서, **역설적으로 더 뜨겁게 타오르는 고마코의 생명력**은 시마무라의 허무주의와 어떻게 충돌하고 있나요?

정*인

시마무라는 고마코의 사랑을 헛수고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설국을 찾아오는데 이 또한 모순이다. 둘의 온도가 다를 수록 서로의 온도가 더 명확히 보인다. 헛수고인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고마코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이고 아름다움을 감식하며 거리를 두는 시마무라는 아무것도 살아내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시마무라의 허무주의는 게으름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덧없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믿는다. 즉 미완성인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이다.

최*서

헛수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랑이 신경쓰는 것 자체가 역설인 것 같다. 정반대되는 둘의 성향으로 인해 시마무라는 고마코의 뜨거운 사랑, 열정에 이끌린다. 또한 고마코의 직업 때문이라도 더욱 냉소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마무라에게는 정반대 되는 성향으로 인해 차디찬 겨울에 눈에 띄는 고마코의 뜨거운 생명력에 이끌리게 아닌가 싶다.

서*경

주인공은 고마코의 사랑과 생명력을 보면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기없는 주인공과 열정적인 고마코가 대비되면서, 이점이 오히려 고마코의 삶을 더 진실하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인공의 태도가 끝까지 변하지 않아서 조금 답답했다.

장*희

고마코의 끈질긴 구애는 시마무라가 이 '설국'이라는 세계에서 추구하려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추구하려던 것이 아니기에 강렬하게 끌리는 법. 새하얀 시마무라의 마음을 고마코라는 뜨거운 불꽃이 천천히 녹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Q3. 신청서에서 '관성적으로 소비해온 계절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시마무라는 설국의 풍경과 여인들을 마치 한 폭의 그림이나 연극처럼 감상하며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방관자적 태도**'가 **현대인이 타인의 고통이나 아름다움을 소비하는 방식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토의해보고 싶습니다.

정*인

시마무라가 감상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현대의 것으로 치환하자면 sns의 시선이나 여행지의 시선이라고

바꿀 수 있다. 이 두 개의 시선 모두 타인이나 타지의 삶을 소비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다. 이 안에서 알 수 있는 미를 소비하는 행위 자체에 내재된 폭력성을 이야기한다.

최*서

시마무라는 요코를 창문밖에 넘어 그녀의 분위기와 이미지에 혹하게 된다. 그녀의 내면보단 외면만 보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우리 사회에도 나타난다. SNS나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 정의한다. 진정한 내면을 보지 않은 채 판단하는 모습,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기 보다는 감성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방관하며 받아드린다.

서*경

주인공은 설국의 풍경과 고마코, 요코를 마치 예술 작품처럼 바라본다.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현대인이 타인의 삶이나 고통을 멀리서 감상하듯 소비하고, 타인의 일에 무관심한 모습들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작품은 이런 관조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장*희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회에 속해 생활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고통이나 사건을 보았을 때 내 주변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부지기수이다. 나는 마치 거기 속해있지 않다는 것처럼 그 일들을 그저 한순간의 가십거리, 논란의 존재처럼 여긴다. 이러한 점에서 시마무라와 현대인이 말 그대로 '방관자'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Q4.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 아래 화재가 발생합니다. 차가운 눈(겨울)과 뜨거운 불꽃의 대비는 극적입니다. 작가가 이 작품의 결말을 '차가운 소멸'이 아닌 '뜨거운 파괴'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신청서에서 언급한 '계절이 만드는 균열과 역설'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정*인

책에서 눈은 덮는 것, 감추는 것을 의미한다. 설국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 균일하게 만드는 데에서 온다. 그것은 억압된 감정, 말해지지 않은 사랑, 드러나지 않은 욕망과 같다. 불은 폭로하는 것, 태우는 것을 의미하며 눈이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이 불의 형태로 분출된다. 눈은 계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불은 계절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이 같이 있을 때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최*서

시마무라의 본심이 현실에서도 반영이 된거지 않을까 싶다. 억눌러왔던 감정과 욕망이 마지막에 표출되면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유부남인 시마무라가 어쩔 수 없이 고마코에게 마음이 가고, 고요한 평화가 깨진다고 느꼈다. 차가운 겨울 속 뜨거운 감정을 표현하며 이런 대비감으로 허무감을 극대화 시키고 설국은 단순 고요한 겨울 이야기가 아닌, 그런 차가운 상황에서 더욱 선명하게 눈이 띄는 인간의 욕망과 공허를 표현한 계절의 역설을 나타내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서*경

마지막 장면에서 차가운 설국과 뜨거운 불꽃의 대비는 인상깊었다고 생각한다. 정적인 눈의 세계 속에서 갑작스러운 불길은 억눌려 있던 감정과 삶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설국의 고요함 속에도 격렬한 생명의 움직임이 숨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은하수와 화재가 겹쳐지는 장면 생명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장*희

설국의 마지막 화재 장면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억눌려 있던 감정과 욕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차갑고 고요한 눈의 세계는 인물들의 고립과 정지된 삶을 보여주지만, 붉은 불꽃은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인간의 감정과 불안을 드러낸다. 작가는 결말을 '차가운 소멸'이 아니라 '뜨거운 파괴'로 설정함으로써, 침묵 속에 쌓여 있던 감정의 균열이 결국 격렬하게 터져 나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은하수 아래 펼쳐진 불길은 아름다움과 비극이 동시에 존재하는 역설적인

장면을 만들어 낸다. 즉, 겨울이라는 계절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오히려 그 안의 감정과 욕망을 더 강렬하게 응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작품은 차가움 속에서도 인간의 뜨거운 본능과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Q5. 우리는 겨울을 '설국의 아름다움'으로 기억하지만, 그 안의 인물들에게 겨울은 혹독한 생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탐미적 문체 속에 숨겨진 인물들의 '삶의 비애'와 '사회적 징후'를 포착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인

경제적 취약계층의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적은 직업 중 하나인 게이샤인 고마코는 자신이 소비되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키려는 처절한 자기 보존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시마무라의 눈에 그것이 헛수고로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계급과 젠더의 시선이 드러난다. 요코의 순수함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의 헌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사회적 징후로 읽어보면 내면이 지워진 타자화된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최*서

단순한 아름다운 문체의 소설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대한 면을 아름다운 문체에 묻어서 표현한 소설이라 생각한다. 삶의 비애를 겨울의 아름다움으로 덮어서 인물들을 결핍과 외로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생각한다. 비극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눈, 설국, 차가운 공기, 은하수 등 포장하여 나타내 더욱 고독이라는 감정을 독자들에게 선명히 전달한 것 같다.

서*경

설국은 겉으로는 아름답고 순수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인물들에게는 생존의 현장이다. 특히 고마코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주인공은 그 현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 대비를 통해 아름다운 뒤에 가려진 인간의 고단한 삶을 보여준다.

장*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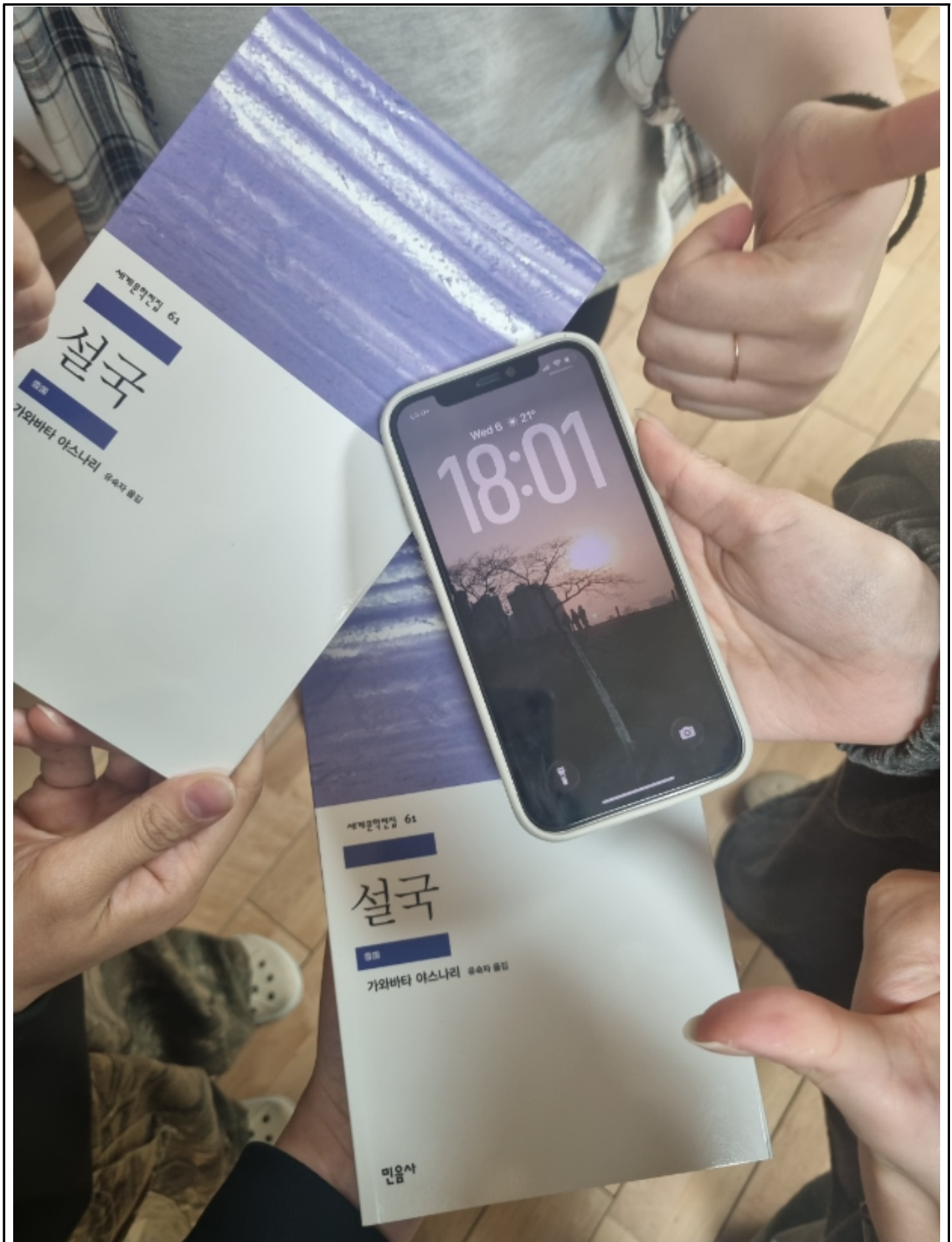
책 전반적으로 모든 인물에게 삶의 비애가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가정, 사랑, 일 그게 무엇이든 인물들은 탐미적인 문체에 가려져 그들의 내면마저 아름답게 치환되고 만 것이다. 사회적 징후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설국 속 게이샤의 등장이다. 사회적 약자인 고마코는 자신이 끊임없이 소비되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삶의 유지하기 위해 그 직업을 선택했다. 시마무라에게 그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고마코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을 것이다.

활동 결과

이번 활동에서 부원들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을 읽고 순백의 풍경 속에서 타오르는 허무와 열정의 역설에 대해 다각도로 토의했다. 작품의 첫 문장인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나 마주하는 설국이라는 공간이 시마무라에게 현실의 가족과 업무라는 책임을 잠시 잊고 오로지 비일상의 아름다움만을 소비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이자 경계임을 분석했다. 부원들은 게이샤 고마코의 헌신적인 사랑을 '헛수고(도노)'라고 치부하면서도 끊임없이 끌리는 시마무라의 모습에 주목했다. 차디찬 겨울 풍경과 정반대되는 고마코의 뜨거운 생명력을 통해, 덧없고 미완성인 것에서 미를 찾는 시마무라의 냉소적인 허무주의와 고마코의 진실한 열정이 충돌하며 빚어내는 온도의 차이를 확인했다. 특히 타인의 내면보다 외면과 분위기만 방관하듯 감상하는 시마무라의 태도를 두고, 오늘날 SNS 화면이나 여행지에서 타인의 삶과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감성적인 가십거리로만 소비하는 현대인의 '방관자적 모습'과 내재된 폭력성을 날카롭게 성찰했다. 또한 결말부의 은하수 아래 펼쳐진 화재 장면을 통해, 차갑고 정적인 눈의 세계가 억누르고 있던 인물들의 감정과 욕망이 붉은 불꽃의 형태로 폭발하는 '뜨거운 파괴'의 역설을 짚어내며 허무감을 극대화했다. 마지막으로 탐미적인 문체 속에 가려진 겨울의 이면, 즉 사회적 약자인 고마코가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게이샤라는 직업과 타자화된 여성의 삶의 비애를 사회적 징후로 읽어냈다. 결과적으로 이번 활동은 눈과 은하수라는 아름다운 이미지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독, 욕망, 그리고 고단한 삶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며 관성적인 겨울의 서정을 환기하는 뜻깊은 성

장의 시간이 되었다.

활동 자료



세계문학전집 61
설국
원작
가와바타 아스나리 유숙미 옮김

세계문학전집 61
설국
원작
가와바타 아스나리 유숙미 옮김

민음사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한림책방					
일시/장소	일시	2026/05/11			장소	한림극회 동아리방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식품영양학과	학번	2024****	이름	서*경
	학과	사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인
	참석인원(명)	4/4명		참가자 대표	장*희 (서명)	
도서	도서명	남아 있는 나날, 설국			저자	가즈오 이시구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2021년 8월 6일 2002년 1월 31일	번역자	송은경 유숙자 (옮김)
오늘의 북클럽 주제	계절과 사회현상의 상관관계 [가을] 남아 있는 나날 & [겨울] 설국 비교 및 비평					
활동 내용 & 방법						
<p>노벨문학상을 받은 두 작품 남아 있는 나날과 설국을 비교하며 토론을 진행</p> <p>Q1. <설국>의 시마무라는 고마코의 열정을 '헛수고'라 부르면서도 그 탐미적 가치에 매료되고, <남아 있는 나날>의 스티븐스는 평생을 바친 '품위'가 결국 무너진 주인을 향한 맹목적 충성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바치는 지극한 정성이 결과적으로 '헛된 것'이 되었을 때, 그 과정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나 가치는 무엇일까요?</p> <p>정*인</p> <p>인간이 삶 속에서 헌신을 다했던 일이 헛수고가 된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서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헌신의 결과가 헛됨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p> <p>최*서</p> <p>끝이 허무할 지라도 그것에 대한 열정과마음은 여전한 점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않나 싶다. 고마코는 열정적으로 사랑을 쏟고 스티븐스는 주인이 몰락해도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영광적이라 여긴다. 결과가 실패이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가치가 있지 않나 싶다.</p> <p>서*경</p> <p>시마무라와 스티븐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헛수고를 살아간다. 시마무라는 고마코의 뜨거운 사랑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만, 그 열정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평생 품위를 지키며 살아왔지만, 결국 그것이 맹목적 충성이었음을 깨닫는다. 두 작품 모두 결과만 본다면 허무하게 끝난 삶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심과 몰입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인간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지 않더라도, 어떤 가치를 믿고 최선을 다했던 시간 자체가 삶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장*희

사람들은 흔히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지, 라는 일명 결과주의적 시각을 좀 더 높게 사는 경향이 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 졌는지보다 결과가 어떻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금 상기 시켜주는 질문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스티븐스와 고마코처럼 무언 가에 맹목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본 기억이 얼마나 있을까. 그들의 헛됨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며 현대 사회에서 잊고 있는 것들을 일깨워주는 가치가 있다.

Q2. 시마무라는 설국의 풍경을 기차 유리창에 비친 영상처럼 바라보는 '방관자'이며, 스티븐스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집사'라는 역할 뒤에 숨은 '관찰자'입니다. **타인이나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 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이러한 태도**가 신청서에서 언급한 '인간 내면의 균열'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정*인

타인의 삶에 아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삶에 완벽히 개입하는 않는 태도는 현 대인들에게 잘 보인다고 생각한다. 다들 타인에게 관심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깊게 타인의 삶에 관 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 질문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내면의 균열이 있는 것이 인간성이라고 생각한다.

최*서

두 캐릭터는 본인의 감정과 거리를 두며 방관하고 관찰을 한다. 이러한 거리감으로 인해 인간 내면의 균열이 시작되고 실제 삶에 개입되지 못한 채 감상만 하다 끝난다.

서*경

시마무라는설국의 풍경과 고마코를 마치 예술 작품처럼 바라보며 일정한 거리를 둔다. 스티븐스 역시 감정을 억누른 채 집사라는 역할 속에 숨어 살아간다. 두 인물 모두 삶의 중심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관 찰자의 위치를 선택했다. 이런 거리감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본질적인 순간들을 놓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상처받지않기 위해 감정을 억누를 때 생기는 내면의 균열 을 보여주고, 결국 두 사람은 삶을 너무 멀리서 바라본 대가로 후회와 공허를 마주한다,

장*희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만큼 그들은 다른 사람의 내면과 스스로의 내면으로 다가갈 기회가 적어지고 점점 채워지지 않는 간극이 균열로 번져 나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그들은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고립되며 어느 순간 그들의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외톨이가 되어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Q3. <남아 있는 나날>의 '가을 저녁'과 <설국>의 '흰 눈'은 모두 무언가 저물어가거나 덮여 사라지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두 작가가 **몰락해가는 귀족 사회(영국)와 사라져가는 전통적 서정(일본)을 포착 하는 방식**에서 어떤 공통적인 '사회적 징후'를 느낄 수 있나요?

정*인

이시구로와 가와바타는 모두 사라져 가는것을 쓰고있지만 직접적으로 슬프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두 작 가는 역사의 흐름을 마지막 세대의 몸과 감정을 통해 기록한다. 역사는 배경으로만 존재하고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상 등을 전면에 놓는다.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 에서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구절이 떠올랐 다. 세계가 변할 때 그 변화가 쓸어가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쓸려가는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것들 은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다. 아름다운 것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고 기록하 려 한다.

최*서

한 해가 가면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오듯 전통이 쇠퇴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상실감과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사라져가는 세계로 표현하여 끝나가고 있는 시간의 흐름 시대의 감정을 독자들에게 표현을 하였다.

서*경

남아 있는 나날의 저녁 노을과 설국의 흰 눈은 모두 소멸과 쇠퇴를 상징한다. 두 작품은 각기 영국 귀족 사회의 몰락과 일본 전통 정서의 쇠퇴를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작가들은 이를 단순한 상실로만 그리지 않는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상실감을 드러낸다. 결국 두 작품 모두, 시대는 사라져도 그 안에서 살아간 인간의 감정은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장*희

남아 있는 나날의 '가을 저녁'과 설국의 '흰 눈'은 모두 한 시대의 쇠퇴와 소멸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가을 저녁은 빛이 서서히 사라지는 풍경 속에서 영국 귀족 사회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가는 분위기를 담아내고, 흰 눈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며 일본의 전통적 정서와 인간적 온기를 희미하게 만든다. 두 작품 모두 겉으로는 아름답고 고요한 자연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대 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가치들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이 자리한다. 특히 인물들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과거의 질서와 감정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두 작가는 자연의 정적인 풍경을 통해 전통 사회의 몰락과 근대화 이후 인간 소외라는 '사회적 징후'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Q4. 두 작품은 각각 영국과 일본이라는 뚜렷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넘어 '계절의 역설'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인

두 소설에서는 계절의 역설을 말한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절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그런 흐름에서 벗어난 계절의 역설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삶에서 의미가 있어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잃은 후에도 계속된다는 책의 의미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최*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후회와 성찰 등 인간의 고독을 각자의 문화에 배경에 맞게 서술했다고 생각한다. 시마무라도 스티븐스도 사랑과 삶에 진심으로 다하지 않고 한 발짝 멀리서 방관하고 관찰했다. 실제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 두 작품 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나타내 사람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다.

서*경

두 작품이 시대와 문화는 다르지만 전 세계 독자에게 공감을 주는 이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고독과 후회를 다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마무라는 타인과 진정 연결되지 못한 채 공허를 느끼고, 스티븐스는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깨닫는다. 이처럼 무언가를 놓쳤다는 느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흔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인물들이 느끼는 허무는 삶의 유한성과 연결되며,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장*희

남아 있는 나날과 설국이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는 이유는, 인간이 누구나 지나간 시간과 사라져가는 것들 앞에서 느끼는 상실과 후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작품 속 인물들은 계절의 변화처럼 삶도 끊임없이 변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채 방황한다. 가을과 겨울이라는 계절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공허함과 고독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미 늦어버린 순간”을 깨닫는 인물들의 모습은 문화와 시대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다. 또한 사람들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데, 이러한 갈등 역시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두 작품은 계절의 아름다움 속에 인간 존재의 덧없음과 외로움을 담아내며,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울림을 준다.

Q5. 스티븐스는 바닷가 저녁노을을 보며 '남아 있는 나날'을 긍정하려 노력하고, 시마무라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은하수'를 마주하며 끝이 납니다. **인생의 허무를 깨달은 직후 마주하게 되는 이 광활한 풍경(계절감)들이 인물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주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정*인

바닷가의 저녁 노을과 은하수 모두 광활한 자연이다. 그러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매우 작아진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것들이 주는 구원은 위로가 아닌 허락이다. 그냥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껴도 된다는 허락. 그리고 그 자연현상들 모두 인간들이 닿을 수 없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주는 구원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최*서

단순한 아름다운 배경이 아닌 본인들의 삶과 존재를 다시 바라보고 성찰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처럼 느껴진다. 단순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존재이며 그렇기에 자신의 삶과 상실을 조금 더 넓고 광활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세지처럼 느껴진다. 인물들과 독자들에게 결국 자신의 삶과 고통만이 전부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 같다. 인간의 감정과 삶은 얼마나 작고 유한한 존재인지 자연을 통해 깨닫게 하고 그렇기에 인간은 후회와 상실같은 감정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구원이라 생각한다.

서*경

남아 있는 나날에서 스티븐스는 저녁노을 아래에서 남은 삶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는 구원은 아니지만, 늦게라도 새로운 태도를 배우려는 희미한 희망을 노을을 통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설국의 시마무라는 은하수 아래 압도적인 허무와 아름다움을 마주만 할뿐, 뚜렷한 변화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두 결말 모두 인생의 허무를 인정한 뒤 맞이하는 순간이지만, 스티븐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시마무라는 여전히 그 속에 머문다. 이 차이는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두가지 삶의 태도를 제안하는데 하나는 늦더라도 다시 삶을 살아보려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허무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시하는 태도이다.

장*희

남아 있는 나날의 스티븐스와 설국의 시마무라는 모두 인생의 허무와 공허를 깨달은 순간, 거대한 자연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스티븐스가 바라보는 저녁노을은 하루의 끝을 의미하면서도, 아직 “남아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한다. 반면 시마무라 위로 쏟아지는 은하수는 인간의 삶이 우주 속에서 얼마나 덧없고 작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두 풍경 모두 단순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연의 광활함은 인물들의 후회와 상실을 감싸 안으며, 인간 존재를 더 큰 시간과 세계 속에 놓이게 만든다. 그 순간 인물들은 완전한 해결이나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까워진다. 독자 역시 이 장면들을 통해 인생의 허무를 부정하기보다, 덧없음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조용한 위안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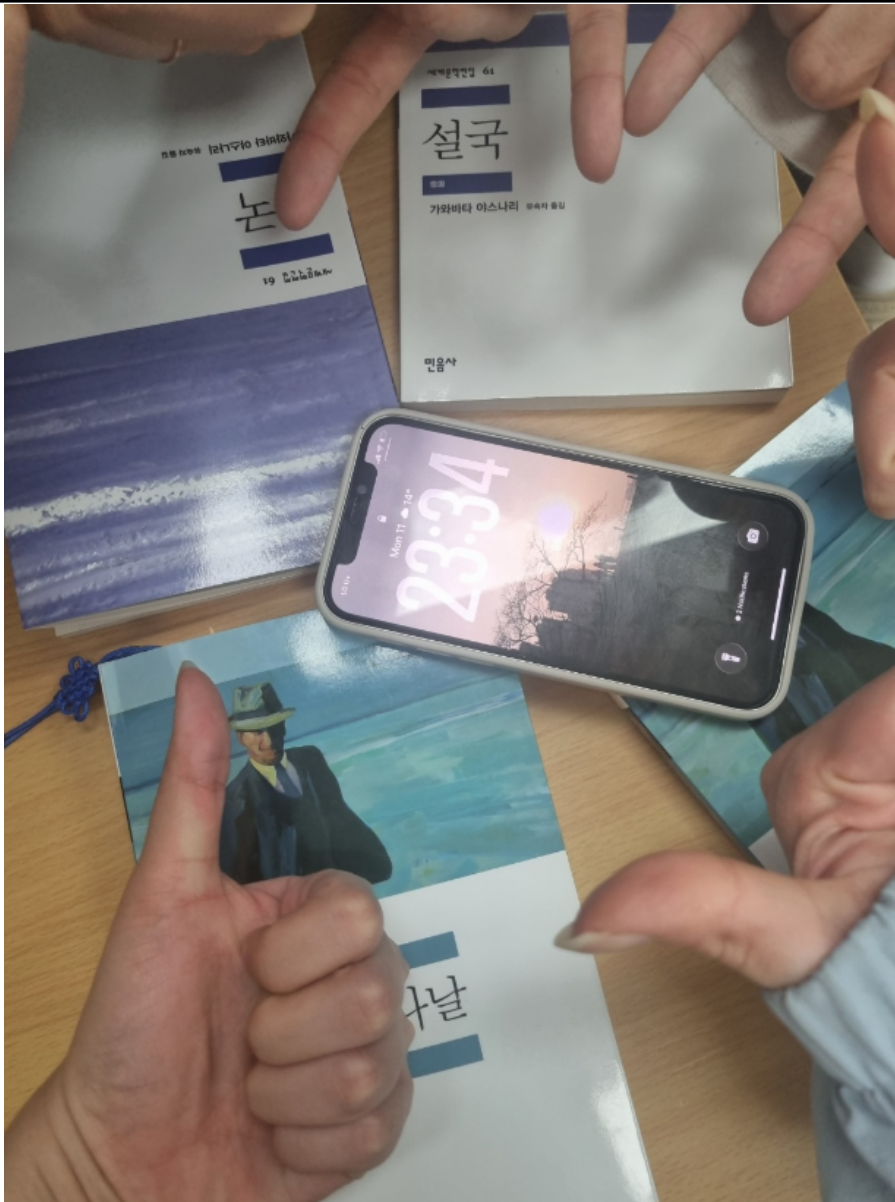
활동 결과

이번 활동에서 부원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두 작품을 바탕으로, 인생의 황혼과 순백의 풍경 속에서 교차하는 '탐미주의와 허무'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눴다. 결과가 비록 허무할지라도 맹목적으로 열과 성을 다했던 스티븐스와 고마코의 과정 중심적 헌신 그 자체에 분명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존재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거리를 둔 채 삶을 방관하고 관찰했던 두 주인공의 태도를

짚어보았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모습이 현대인의 소외된 인간성과 닮아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억압이 결국 내면의 균열을 가중시켜 본질적인 순간을 놓치게 만든다는 뼈아픈 역설을 도출했다.

나아가 작품 속 '가을 저녁'과 '흰 눈'의 이미지를 통해 근대화 이후의 전통 사회의 몰락과 근대화 이후의 인간 소외라는 '사회적 징후'를 섬세하게 포착했다. 시대를 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보편적인 고독과 후회라는 깊은 울림을 준 이유 역시, "이미 늦어버린 순간"을 자각하는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계절의 변화에 대입하여 완벽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결말부의 '저녁노을'과 '은하수'라는 광활한 자연 풍경을 두고, 인간의 상실과 고통이 거대한 우주 앞에선 아주 작은 것임을 깨닫게 하는 장치로 해석했다. 비록 완전한 구원은 아닐지라도, 늦게나마 현실을 수용하고 남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와 허무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시하는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제안하며 한 학기 동안 탐구한 '계절의 역설'을 더욱 성숙한 시선으로 확장하는 뜻깊은 성장을 이뤄냈다.

활동 자료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한림책방					
일시/장소	일시	2026/05/20			장소	한림극회 동아리방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식품영양학과	학번	2024****	이름	서*경
	학과	사학과	학번	2025****	이름	정*인
	참석인원(명)	4/4명		참가자 대표	장*희 (서명)	
도서	도서명	피로사회			저자	한병철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출판연도	2012년 3월 5일	번역자	
오늘의 북클럽 주제	계절과 사회현상의 상관관계 <피로사회> 비평					
활동 내용 & 방법						
<p>피로사회를 읽고 총 평점 및 질문에 대한 토의 진행</p> <p>피로사회 평점/느낀점</p> <p>정*인 평점 4.0/5.0</p> <p>비교적 공감이 많이 가고 골똥히 생각해볼 여지를 주는 책. 다만 문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비문학처럼 한 문단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곰곰히 생각해야 책을 이해할 수 있었다.</p> <p>최*서 평점 2.0/5.0</p> <p>분명 한글인데 글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 내가 이 책을 제대로 받아 드리기에는 부족하기도 하고, 너무 이른 책인 듯 하다. 스스로의 검양을 쌓은 후 다시 읽어보겠다.</p> <p>서*경 평점 3.0-3.5/5.0</p> <p>고민해줄 지점들을 집어주는 책이 아닌가 싶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거 같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했다.</p> <p>장*희 평점 4.0/5.0</p> <p>여러 번 대두되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둔 책이 아닌가 싶다. 살다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기 마련이라 생각해 곱씹을수록 생각보다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던 책이다.</p> <p>Q1. 저자는 과거의 사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형의 규율사회였다면, 현대 사회는 "~할 수 있다"는 긍정형의 성과사회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은연중에 느끼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외부의 강요나 금지 때문인지, 아니면 "너는 할 수 있어"라는 긍정의 메시지 때문인지 책의 논리에 비추어 각자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p> <p>정*인</p>						

개인적으로 '힘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그 이유가 책에서 말한 논리와 비슷하다. 힘내라는 말을 들으면 물론 말을 한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내가 힘들다는데 힘을 내라는 것을 강요 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최*서

나는 현대 사회의 압박감이 단순히 외부의 강요 때문이라기보다, "너는 할 수 있어"라는 긍정의 메시지에서 더 크게 온다고 생각한다. 나도 자주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넌 할 수 있어"라는 말조차 오히려 압박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피로사회에서 말한 자기 착취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서*경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가 단순한 강요나 금지보다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같은 긍정의 메시지가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계속 비교하고 몰아붙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SNS나 주변 사람들의 성과를 보며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거 같다.

장*희

나는 현대 사회의 압박이 단순한 금지나 강요보다도 "너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에서 더 크게 온다고 느낀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남들의 이목을 많이 받을수록 해야 할 일을 더 못하는 타입이다. 누군가의 기대나 시선이 집중되면 스스로를 계속 의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껴왔다. 특히 "잘할 수 있다", "더 보여줘야 한다"는 말들이 응원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현대의 성과사회는 겉으로는 자유롭고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경험이 많다.

Q2 책에서는 현대인이 스스로를 착취하면서도 이를 '자유'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더 강력한 폭력에 시달린다고 분석합니다.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밤을 새우거나 취업·학업 스펙을 쌓는 행위가, 실제로는 '나를 향한 착취'일 수도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정*인

동의한다. 나의 경우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뤄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를 즐기는 느낌도 있다. 뭔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 그것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서

동의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밤을 새우고, 끊임없이 스펙을 쌓으며 자신을 몰아붙이게 된다. 겉으로는 내가 선택한 '자유로운 노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들과 비교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

서*경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일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소모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쉬고 있어도 이 시간에 뭔가 해야 하는데라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이점이 자기 착취라는 표현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착취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스스로 의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얻는 노력도 존재하기 때문이며 불필요하지 않은 착취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한 균형 속에서 노력하느냐라고 생각했다.

장*희

매우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알고 있음에도 하는 착취이다. 밤을 새우고, 스펙을 쌓고, 인맥과의 소통을 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품이 드는 행동들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갉아먹게 되는 일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착취라고 불리우는 행동은 모두 자신이 깨닫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에 가깝다. 역설적이게도 나의 답변 역시 이미 착취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항상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착취는 멈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Q3. 한병철 저자는 현대인의 우울증과 번아웃을 치료하기 위해 니체의 말을 인용하며 '자극에 즉각 반응

하지 않고, 중단하고, 거부하는 법(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보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지,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토의해보고 싶습니다.

정*인

현재 사회가 정말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정말 많은 정보들을 짧은 시간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생각할 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체 즉 인터넷을 끊을 수 있냐인것 같다.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일상 속에 인터넷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최*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스스로 조절하는 자제력이라고 생각한다. 즉, 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태도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 더 해야 한다는 압박과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쉬는 것조차 불안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알아도 쉽게 멈추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는 것 같다.

서*경

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과 깊은 사색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스마트폰과 SNS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 받고, 잠시 멈춰 있는 것조차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나 또한 쉬는 시간마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절하고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장*희

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란 말 그대로 꼭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멈추고, 반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하지만 때로는 굳이 모든 정보에 반응하지 않고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쳐질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쉬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분히 지쳐 있어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게 된다. 저 역시 가만히 쉬고 싶을 때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경험을 자주 한다.

Q4. 저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고독하고 고립된 '분열적 피로'와 달리,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쉬게 만드는 영감 어린 '사색적 피로(깊은 심심함)'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종류의 피로를 더 많이 느끼셨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깊은 심심함'의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현대인의 고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인

나도 최근에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에 피로를 더 느꼈던 것 같다. 오히려 일이 많고 바쁘면 피로하다는 생각조차 안하는데, 할 일이 없어 깊은 심심함을 느끼는 것이 더 피로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고뇌에 대해 공감한다. 그리고 그런 심심함을 느낄 때 피로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요즘 많은 말이 있는 adhd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최*서

나는 최근 '사색적 피로'보다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 '분열적 피로'를 더 많이 느낀 것 같다. 해야 할 일과 정보는 계속 쏟아지는데, 쉬는 시간에도 불안해서 완전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깊은 심심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가만히 있으면 뒤쳐지는 느낌이 들고,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경

최근에는 사람을 지치고 고립시키는 분열적 피로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 해야 할 일과 정보는 계속 늘어나는데 충분히 쉬지는 못하다 보니, 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로해지는 것 같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깊은 심심함은 오히려 견디기 어려워졌다. 늘 무언가를 보고 듣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장*희

나는 최근 들어 사색적 피로보다는 분열적 피로를 압도적으로 많이 느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바쁘고 버겁게 느껴져서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던 것 같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이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지는 순간도 많았다. 저자가 말한 '깊은 심심함'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색할 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런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은 도파민과 즉각적인 쾌락에 익숙해져 있어서 빠르고 자극적인 정보만 계속 원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조용하고 느린 시간을 보내면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나 역시 가만히 쉬고 있으면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회가 점점 더 조급해지고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Q5. 과거에는 외부의 적이나 바이러스(부정성)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거부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의 과잉(긍정성)'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너무 많은 선택지,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연결이라는 '과잉'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인

동의한다. 영양제 또한 과하면 안 좋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도 많이 먹으면 안 좋듯이 정서적으로도 좋은 것들이 과하게 많은 경우에도 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 또한 결정을 잘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욱더 선택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최*서

공감한다.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지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다. SNS나 인터넷만 봐도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사람들의 삶이 들어오고, 비교할 대상도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고, 계속 뒤쳐지는 느낌까지 받게 된다. 결국 이런 '과잉'이 사람을 더 불안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서*경

현대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단순한 결핍보다도 과잉이라는 분석에 공감했다. 정보, 인간관계,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서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지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SNS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와 타인의 삶이 들어온다. 과거에는 부족함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많은 것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시대이기에 때로는 일부러 정보를 끊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장*희

나는 현대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과잉'이라는 저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과거에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참고할 강의나 문제집, 공부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더 좋은 것을 골라야 한다는 부담도 커지는 것 같다. 또한 해야 할 일이 계속 쌓이다 보니 충분히 쉬고 있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이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활동 결과

이번 활동에서 부원들은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읽고 성과주의 사회가 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이면의 고뇌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눴다. 다소 난해하고 철학적인 텍스트의 성격상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일상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았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읽을수록 큰 공감을 표했다. 부원들은 과거 규율사회와 달리 "~할 수 있다"는 긍정형의 성과사회 속에서 현대인이 겪는 압박감을 짚어보았다. "너는 할 수 있어", "힘내"와 같은 응원의 메시지가 도리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며,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몰아붙이게 만드는 거대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외부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밤을 새우고 스펙을 쌓는 행위가 자유를 가장한 '자기 착취'라는 저

자의 분석에 깊이 동의했다. 쉬는 시간조차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현실이야말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강력한 착취의 형태임을 자각했다. 나아가 정보와 자극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자제력이자 인터넷과 자극을 끊어낼 수 있는 조절력이라고 정의했으나, 일상에 너무 깊이 스며든 미디어와 주변의 시선 탓에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했다. 최근 부원들이 겪은 피로 역시 사색적 피로보다는 무기력과 고립을 낳는 '분열적 피로'에 치우쳐 있었으며, 도파민과 즉각적인 자극에 익숙해진 탓에 조용히 멈추어서는 '깊은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의 고뇌에 깊이 공감했다. 결론적으로 과거와 달리 결핍이 아닌 정보, 인간관계, 선택지의 '긍정성 과잉'이 오히려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이번 활동은 성과사회라는 무한 경쟁 속에서 자발적으로 소진되던 관성적 태도를 멈추고, 일부러 정보를 끊어내며 삶의 균열을 회복하는 '사색적 삶'의 가치를 검토하는 뜻깊은 총괄의 시간이 되었다.

활동 자료

